

[종합·해설]

“선거구 지켜라” 물밑 신경전 치열

회정위 내달 15일 ‘선거구 획정안’ 확정

현행 인구수 기준 땐 3~5곳 줄어들어

29일 공청회 등 본격 논의…의원들 촉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원정수 조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내달 15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증원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해 현행 299명(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의원을 소폭 늘리자는 의견 등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정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의원 수 증원은 어려워 현행 유지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인구가 2003년 12월 말에 비해 88만1천여명이 늘어난 만큼 이를 감안해 지역구 의원을 약간 증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인구 상·하한선(10만5천명~31만5천명)을 적용하면 지난해 말 인구 기준으로 통·폐합 선거구는 광주 서구, 전남 여수, 합평·영광, 강진·완도, 장흥·영암 등 전국적으로 11개 지역구며, 분구 대상으로는 광주 광산, 경기 용인, 경기 화성 등 3개 지역구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호남 등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감소할 수 밖에 없

■ 정치권서 논의중인 18대 총선 선거구 통합·분구는

	현행기준	조정안 A	조정안 B	조정안 C
인구상한	10만5천명	10만4000명	10만3000명	10만1000명
인구상한	31만5000명	31만2000명	30만9000명	30만4000명
통합지역구	3개→2개 서울 노원, 서울 송파, 대구 달서	서울 노원, 서울 송파, 대구 달서	서울 노원, 대구 달서	
분구지역구	2개→1개 부산 남·광주 서·경기 여수 부산 남·광주 서·전남 여수	부산 남·광주 서·전남 여수	부산 남·전남 여수	
하한선 미달로 조정 대상	전남 합평·영광, 전남 강진·영광, 전남 진도·영광, 전남 영광, 전남 강진·영광	전남 합평·영광, 전남 강진·영광, 전남 진도·영광, 전남 강진·영광	전남 합평·영광, 전남 강진·영광, 전남 진도·영광, 전남 강진·영광	
분구지역구	1개→2개 광주 광산, 경기 화성	광주 광산, 경기 화성	광주 광산, 경기 화성	광주 광산, 경기 화성
	2개→3개 경기 용인	경기 용인	경기 용인	경기 용인

는만큼 인구 상·하한선 조정을 통해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정위는 오는 29일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기준과 관련,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어 설연휴 이후인 내달 12일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을 진행한 뒤 내달 15일 확정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조정과 관련, 물밀 신경전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전남지역 통폐합 선거구를 잘 조정한다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선거구는 단 1개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구 하한선 기준을 넘어서는 일부 전남지역 지역구를 분할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인구 하한선이 10만1천~30만4천명 규모로 정해진다면 서구도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에서 중국 특사를 마치고 온 박근혜 전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공천, 당에서 잘할 것” 朴 “전적으로 동감”

이명박-박근혜 ‘공천 갈등’ 원론적 합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4월 총선’ 공천 문제와 관련, 당내 갈등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주 대변인은 “두 분이 공정공천 원칙에 공감했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유

비서실장도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다”고 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가진 회동에서 공정공천에 합의했다고 주

호영 당선인 대변인과 박 전 대표 비

서실장인 유정복 의원이 공동 브리핑

전적으로 동감했다”면서 “그 문제(공천)는 강제설 대표께서도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공천문제에 대한 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면서 “자꾸 이야기 하면 또…”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 당선인과 박 전 대표는 이처럼 큰 틀의 ‘공정공천’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공천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명박 핫라인’ 정용화씨 서구 갑 출사표

4·9 총선 현장

선거 사무소 개소 표발같이 본격화

○…정용화 전 연세대 연구교수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핫라인이 돼 호남지역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광주 서구 갑지역 출마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최근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교수는 2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말뚝만 박아놓아도 당선이 되는 상황에서 누가 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겠나?”면서 “광주의 비판정신을 이어받아 약자 입장을 대변하고 광주 정신을 한나라당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지지자를 호소.

정 전 교수는 인성고를 졸업하고 서울 외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구 북경대와 일본 동경대를 거쳐 이명박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세운 개인 크탱크 국제정책연구원(GSI)의 정책 전문위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지역이 텁텁한 대통합당·민주당 후보들과 경쟁을 벌인다는 방침.

자유신당 광주시당 오늘 창당대회

○…(가칭)자유신당 광주시당이 24일 창당대회를 열고 종선체제를 본격화.

이날 오후 3시 광주시 광천동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창당대회에는 이희창 대표가 참석, 간담회를 갖고 창당 취지와 정책방향 그리고 공천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

자유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에는 박영근 전 이희창 후보 광주선대본부장이 선임됐으며, 전남도당은 추후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

민노 광주시당 당원 30명 집단탈당

○…대선 패배 이후 내분을 겪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일부 정파가 신당 창당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노당 광주시당 당원 30명이 지난 22일 집단 탈당.

안영돈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박한서 전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 민노당 당원 3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상황은 몇몇 정파 간 타협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으며 민노당은 이미 진보정당으로서의 수명을 다했다”며 탈당을 선언.

이들은 “우리의 탈당은 낡고 병든 구세대 진보정치에 고하는 종언인 동시에 밝고 건강한 다음 세대 진보정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24일 오후 광주 광진동 적십자수련원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

18대 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대폭 감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조치된 건수는 수사의뢰 2건, 경고·주의 28건 등 모두 30건으로, 지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160여 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

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금융·음식물제공 3건, ▲시설설치 12건, ▲인쇄물배부 6건, ▲의정보고 등 기타 9건이 적발됐다”며 “아직까지는 선거가 과열되지 않은데다, 불법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면서 위반건수가 감소한 것 같다”고 분석.

한편, 광주·전남선관위는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금품제공 등 각종 기부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600명의 인력을 투입, 대대적인 감시·단속활동을 펼칠 계획.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YS 차남 김현철씨

“거제 출마하겠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18대 총선에서 YS의 고향인 경남 거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선언했다.

김현철씨는 이날 거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번 총선이 정치입문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면서 “CEO(최고경영자) 출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경영학박사 경력을 살려 거제와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당의 움직임은 총선에서 고전이 예상되며 약자 확보를 위한 그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그는 이어 “정치를 하더라도 명분이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 거제는 선산이 있고 아버님의 생가도 있고 제 본적이 있는 곳”이라면서 “한나라당 공천 획득에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당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검토

‘지역주의 극복’ 명분에 ‘정략적’ 비판 가능성도

대통합민주신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당 김희석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 의석이 지역별로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수밖에 없다”며 “지역주의 극복은 명분으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를 제안하면 이명박 당선인이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이 가능하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광주·전남 출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최근 정개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석폐율제 도입 등을 우리 안을 내놓고 있으

제43회 광주일보 3·1 전국마라톤대회

시·군·구·면 1000팀 출전 예상

총 1000팀 3000명 출전 예상

3·1 운동의 날 기념 전국마라톤 대회

3·1 운동의 날 기념 전국마라톤 대회